

■ 중앙일보 초청 간담회

“ 기업발전이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 ”



◀ 중앙일보 초청 회원 간담회 전경

한국광고주협회는 4월 22일 조선포텔 그랜드볼룸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비롯한 편집, 간부진을 초청, 제61회 회원간담회를 가졌다.

민병준 회장은 “최근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며 “오늘 이 모임이 기업과 정부, 언론이 힘을 합쳐 난국을 완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회장은 “한국경제 발전의 커다란 역할을 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상처를 입었으며 언론으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다.”며 “구조조정의 목적은 기업을 살리려는 것이며 이제는 기업들이 힘을 얻어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은 “국내 최초의 전자신문 발간, 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준비, 중앙방송 출범과 함께 광고주의 동반자가 되는 종합 미디어 그룹이 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 이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특별 연설 >

이날 간담회에 특별초청 연사로 나선 이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진전과 한국의 미래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계 구조조정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연설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현재 금융감독위원회장은 “정부는 IMF와 맺은 약정안에서 꾸준한 구조조정의 노력을 거쳐 초지일관 변함없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98년 1월 13일 5대 그룹과 5대 기본과제 3

대 추진방향에 대한 약속을 하였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불필요한 자산처분과 같은 재무적 건전성 확보,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기업경영의 책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책아래 4만여개의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분류작업을 거쳐 전체기업의 5%를 퇴출하였으며, 98년부터 금융경색이 다소 해소되었고 세계언론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는 등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점차 달라지고 여타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등 한 국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현재를 평가하였다.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 그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임직원, 주 채권은행,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영권의 책임과 능력이 필요하며 경영 능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저절로 정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감시체계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고주측에서 민병준 광고주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광고주 1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앙일보에는 홍석현 사장을 비롯한 간부진 40여명이 참석, 광고주들과의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